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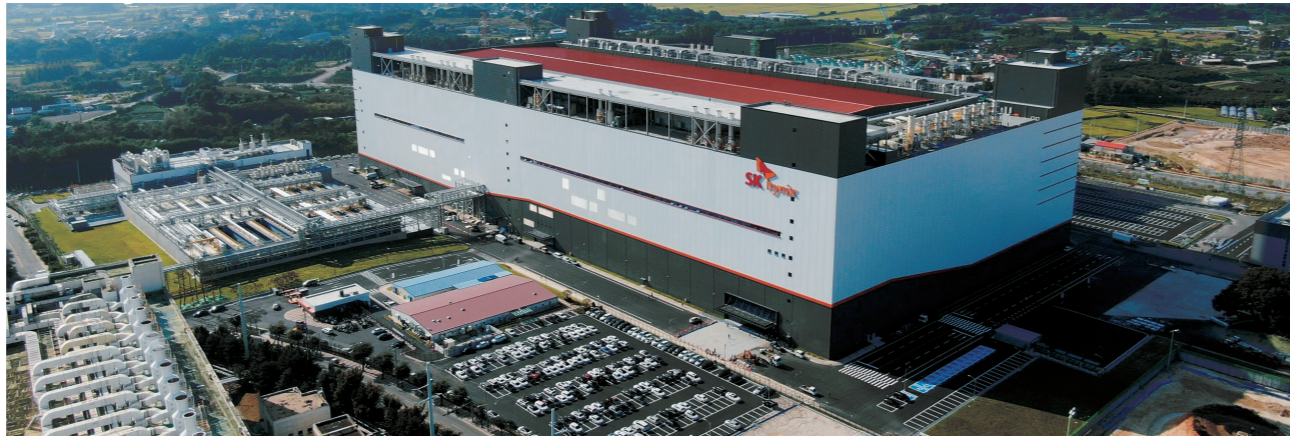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좋은 모델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 행복을 만드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비전 아래 ICT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 구성원 자발적 참여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기업이 있다.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행복 GPS' '실버프렌드' '행복도시락' 사업 등 아동·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가 그 주인공. 이 외에도, 지역특성에 맞추어 청년일자리 창출, 청년소셜벤처파크 설립, 창업 공모전 시행 등 많은 노력으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이일우 부 사장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전경.

지역사회의 동향 수시 파악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 펼칠 예정

Q.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A. 지역사회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자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에, 각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청주, 이천)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다보니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사람과 기술을 연결해 행복을 만드는 CSR'이라는 비전 아래 ICT 기반 사회 안전망 구축, 미래 인재 양성, '구성원 자발적 참여' 세 가지 핵심 영역을 중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A. 최근 저출산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문제는 더 이상 국가와 지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여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항상 고민

하고 있었다. 전자차원 관점으로 시작된 사업을 말하자면, 치매 어르신 및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행복GPS', AI스피커를 매개로 한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인 '실버프렌드', 결식 위험 아동·청소년 및 노인 대상 밀반찬을 지원하는 '행복도시락', 아동·청소년 대상 음악을 통해 정서적 안정 및 교육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추어 청년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관-학이 협력하여 청년소셜벤처파크 설립과 창업 공모전 사업 진행, 청년 뮤지션 활동 무대 제공 및 친환경 힐링 페스티벌 'Beautiful Green Life', 노인 정보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ICT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배경을 꼽는다면?

A. 모든 기업들이 본업 특성에 기반

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고, 사회공헌활동은 더 이상 부가적인 활동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역할이 됐다. 우수한 사회공헌활동을 이뤘기에 인정기업에 선정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매진하라는 의 미로 받아들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선정됐다고 생각한다.

Q.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난관은 없었는지?

A. SK하이닉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보다 많은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해 다양한 동기부여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경영실적이 저조하여 어려움도 있지만 최대한 사회공헌 활동만큼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한 상태이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A. 지역사회와 '공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례로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 뮤지션 활동 무대 제공 및 친환경 페스티벌인 'Beautiful Green Life' 사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역 청년 뮤지션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진 문제를 파악하게 되었고 지역 특성상 수도권과 거리가 멀어 문화체험 기회가 다소 부족할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역 청년 및 사회적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 방향을 고민한 끝에 환경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참여를 독려해 시민, 기업,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 청주시민 약 6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봄·가을 대표 친환경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A.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사회공헌의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한화손해보험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확대

한화손해보험-인구협회와 협약

충북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내년도 확대 추진한다.

내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사업비를 두배 이상 늘려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화손해보험의 후원을 받아 별도 사업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 냉동 난자를 실제 임신에 위해 사용할 경우에 지원하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원)도 정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충북도는 지난 14일 도청에서 한화손해보험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도지사, 한정선

한화손해보험 부사장, 연경희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으로 한화손해보험은 앞으로 매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후 원 등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경희 회장은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난임 증가에 대응한 건강난자를 동결 보존하고 임신을 원할 때 해동하여 임신에 사용하는 출산을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정선 부사장은 "앞으로도 난임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대상질환 14개로 늘려

치아교정, 후불제 이용 후 초과분에서 200만원까지 지원

충북 의료비후불제의 대상 질환이 기존 6개에서 14개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사업 시행을 위한 재무보증 변경과 관련해 도의회 승인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슬 · 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 · 뇌혈관 질환에만 지원했던 의료비후불제가 지난 13일부터 치아교정, 암, 소화기(담낭 · 간 · 위 · 인과 등 14개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는 지역 수술 현황과 본인 부담이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주민들의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도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대출은행인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는 방식이다.

이번에 추가한 치아교정은 취약계층 본인과 자녀가 이용할 수 있다. 300만 원까지는 의료비후불제를 이용하고 초과분에서 200만원까지는 적십자사와 해당 치과병원 등이 지원하게 된다.

치아교정을 시행하는 병원은 청주시(효성병원 외 21개소), 충주시(중앙치과외원 외 2개소), 제천시(오치치과외원), 보은군(미소치과외원 외 4개소), 영동군(허치치과외원), 진천군(서울치과외원), 음성군(서울대바른치과외원 외 5개소), 단양군(연세드림치과외원)을 포함하여 총 40개소에서 진행 중이다.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도내 44만여 명이 수혜 대상이다.

사업을 시작한 지난 1월부터 11월 8일까지 400명이 이용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183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중 336명이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의료비후불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보건정책과(☎043-220-3192~3194)로 문의 바란다.



2023년 발달장애인 핸드볼 리그 개최.



카페술술(버리스타) 노인일자리.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043) 255-0504, 253-0504 FAX: (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 · 스프링제본  
 칼라복사 · 칼라출력  
 대형코팅 · 현수막출력  
 대형출력 · 도면복사

무인 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 청주대점 / 충북대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 충주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 건국대 충주병원, 특수휠체어 등 진료장비 갖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 장애인 임산부·출산·여성질환 진료 등의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예약·동행 등 진료 보조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난 8일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개시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21명, 전담 코디네이터 3명이 배치되었다.

또 특수휠체어,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 리프트 등 장애인을

위한 진료장비를 갖췄다. 외래, 분만, 입원 등 진료 전 과정에 의료진이 동행하고, 수어통역 서비스도 이뤄진다. 의료진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된다. 지역사회 여성장애인에게 맞춤형 임신·출산과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건국대 충주병원을 포함해 서울대병원, 울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예수병원(전북 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남대병원 등 전국에 7곳이 운영 중이다.

앞으로 차의과대학교 구미차병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실

원, 이화여대 목동병원, 성애병원 등 순차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선정 기관에 대해 1차

년도에 시설개보수·장비비 3억 5000만원, 운영비 3750만원을 지원하고, 2차년도부터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다.

# 청주시, 동절기 종합대책 5대 분야 13개 과제 추진

###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 등 집중 관리

청주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4개월간 동절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최우선 화재 예방, 저소득층·취약계층 보호, 시민 건강관리 및 감염병 예방, 생활불편 해소 등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를 정해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난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한다. 강설과 한파 시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피해 조치에 적극 나서고, 농업 피해를 막기 위한 농업분야 상황실도 운영한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28곳은 화재취약시설로 특별 관리한다. 산발 발생이 잦은

구간은 입산 통제, 등산로 폐쇄 조치로 사전 대응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대책도 추진한다.

사랑의 나눔 운동, 위기가구 긴급지원 특별보호대책, 민·관·현장활동전담팀 야간 순회, 에너지 바우처 및 난방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돕는다. 질병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 계절 감염병에 대한 신

속대응반을 편성하고, 각 시설과의 핫라인을 구성해 상호 공유체제를 유지한다.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는 긴급 백신접종, 정밀 검사 등 단속 등 종류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물가안정대책반, 에너지 절약운동, 수도민원상황실 24시간 운영, 동절기 가뭄 대비 비상급수대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범석 시장은 "모든 분야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대비해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음성군, 외국인 주민 정착·자립 위한 지원 최선

### 내국인 대비 외국인 주민 수 전국 1위 음성

음성군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한 행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음성 지역의 2900여 개가 넘는 제조업체가 가동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 안 될 존재다. 이들은 지역의 생산과 소비 활동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기업체와 농촌의 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등록 외국인은 8298명(2021.9), 9031명(2022.9), 1만1697명(2023.9)으로 매년 늘어나며, 2022년과 2023년 9월 기준 외국인 주민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8.2%, 22.8%

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군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14.7%(2021.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실에 따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을 위해 군은 2019년 외국인지원팀을 설치하고 2020년 충북 최초로 외국인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군은 외국인지원팀을 신설해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이 내국인과 문화적 이질감 없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통해 다방면으로 돕

고 있다. 아울러 군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음성생활 가이드북'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민원창구 미디어라인에 영어를 표기하고 민원서식 작성 방법을 4개 언어로 설명한 민원서식 해석본을 비치했다.

또 외국인 민원인을 위한 외국어 통역관을 지정하고 인공지능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전경

AI 통·번역기도 설치·운영하며, 외국인 주민이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생거진천 케어팜(치유농장)' 내 웰컴센터(Welcome Center) 개소식이 8일 송기섭 군수 등 많은 관계기관장, 사회적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생거진천 케어팜 웰컴센터' 문 열어

### 다양한 교육과 실내 프로그램 지원 예정

진천군은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고용,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생거진천 케어팜(치유농장)' 내 웰컴센터(Welcome Center)를 준공하고 지난 8일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 윤대영 진천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관계기관장, 사회적 농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

석했으며 경과보고, 기념 커팅식, 시설 관람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케어팜(carefarm)은 돌봄(care)과 농장(farm)의 합성어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선진국에서 활성화돼 있는 모델이다.

진천군은 구)농업개발센터 유희 부지를 활용해 거동 불편 어르신,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건축물과 실외 텃밭을 갖춘 치유농장(케어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웰컴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교육과 실내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농장 온실 조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형 돌봄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선정

### 3367명에 일자리 제공

제천시는 올해 '충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성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 창출 평가는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실적과 근로환경, 일자리 시책 추진 등의 항목을 조사했다. 시는 민선8기 '백세

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공약이행을 위해 올해 노인 재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생2막 지원사업 운영과 제천형노인일자리 150개를 창출했다.

120억의 노인일자리 사업비를 투자해 3367명의 노인들에게 정부추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에 힘써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

김창규 시장은 "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축하하며 백세시대 활기찬 노후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북도 특수시책인 이 사업은 사회전반에 노인 고용분위기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단양군, 청소년 페스티벌 '더드림' 성료

###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및 다양한 끼 발산



단양군 단양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한 '더드림(The Dream)'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공연과 체험 등을 즐기고 있다.

단양군 단양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의 발견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2023년 단양군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페스티벌 '더드림(The Dream)' 행

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 주민, 관광객 등 400여명이 참여했고 진로 탐색을 주제로 10개 부스가 운영됐다. 특히 다양한 로봇 체험과 기

술을 경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부스는 청소년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청소년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인생네컷과 전자 농구 등 다양한 오락 문화도 소개하며 축제 구성에 대한 지역 청소년들의 요청에 부응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단양군 청소년동아리 13개 팀(밴드, 마술, 보컬, 댄스, 응원 등)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청소년들의 흥과 끼를 마음껏 펼쳤다.

단양군 문화예술과 유속미과장은 "청소년들의 즐거운 함성과 수준 높은 공연, 질서 문화를 보여 우리 단양군의 장래가 밝다는 것을 느꼈다"며 "단양군에서도 청소년 축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음은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즉석식품	면류(리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수건류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기저귀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음료류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머리비,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신선 식품	육가공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제빙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별류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 '아이 낳고 잘 기르기' 과산범군민협 출범

기업체 등 지역 85개 단체 참여... 출산·돌봄 친화문화 조성



과산군은 지난 13일 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과산만들기 범군민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과산군이 지난 13일 과산문화예술회관에서 출산·돌봄 친화문화 조성사업 인준식 및 인준문예인식에 대한 전 군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과산만들기 범군민협의회(이하 범군민협의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은 송인현 과산군수를 비롯해 관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 80여명의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군민협의회 출범배경과 역할에 대한 보고와 함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과산만들기'를 위한 결의선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과산만들기 범군민협의회'는 과산군, 중원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과산경찰서, 과산중학교, 과산소방서 등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30단체, 각 읍면 리우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노인회 등 55단체, 총 85단체로 구성됐다.

범군민협의회는 앞으로 자녀 돌봄 취약가정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구 인식개선 프로그램 참여, 임신·출산·돌봄 친화 문화 확산, 다자녀 가정 혜택 서비스 확대 동참 등이 이어가 태어나면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게 된다.

과산군은 이와 발맞춰 직장 내 육아휴직, 육아시간 출퇴근 배려, 임신부 이동 편의 증진 등 각 기관단체에서 출산 돌봄 친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송인현 군수는 "민선8기 과산군은 저출생,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과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 영동군, 청년 부부·다자녀 가구에 통 큰 지원

내년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영동군이 청년 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1억원 성장 프로젝트'의 하나로 내년부터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은 신혼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대상에 해당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뒤부터 5년

간 매년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국적으로 청년 부부 정착 지원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있지만 1000만원을 주는 곳은 많지 않다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충북에서 옥천군과 과산군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정도다.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구매(전세)비용 대출금 잔액의 3%를 연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 하는 사업이다.

군에 주소를 두고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가운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5년 이내 신혼

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4만 4353명(남 2만2212명, 여 2만2141명)이고, 이 가운데 19~45세는 8738명(남 4750명, 여 39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9.7%를 차지한다.

군은 결혼부터 자녀 양육까지 생애 주기별 지원으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정영철 군수는 "청년 부부 정착장려금과 다자녀가구·신혼부부 주택구매(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보은군, 초·중·고 입학축하금 대상 '확대'

내달 6일까지 추가 모집

보은군은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모두 군에 주민등록하고 거주해야 하는 기존의 지원 대상 범위를 부모 가운데 한 명과 자녀로 확대했다.

주민등록 한 기간도 '입학일 1년 전'부터 '입학일'로 신청일까지로 완화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입학축하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학생 보호자의 결초보은카드를 통해 지급한다. 결초보은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대상자는 사전 발급해 신청해야 한다.

입학축하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6일까지 입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의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30만

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이다.

입학축하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 평생교육팀(☎043-540-3138)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기준 완화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산군은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평생돌봄 푹!푹!' 사업을 함께 이끌어 나갈 돌봄소통 창구 담당자와 돌봄 매니저, 봉사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 과산군, 어르신 돌봄 역량강화 교육 실시

돌봄매니저·봉사자 배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산군은 감동과 함께하는 과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평생돌봄 푹!푹!푹!'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갈 읍·면 돌봄소통 창구 담당자와 돌봄매니저, 푹 푹 마을 돌봄봉사단 50여명을 대상으로 '돌봄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14일 과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에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안동시 사회적협동조합 돌봄 박명배 대표를 초빙해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완벽 이해'라는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 돌봄 정책 교육과 현장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사례교육을 진행했다.

과산형 어르신 돌봄 특화사

업 '평생돌봄 푹!푹!푹!'은 과산군의 287개 마을(리)에 읍·면별 돌봄 매니저와 봉사자가 배치돼 안전주거 집 수리서비스, 퇴원환자 집중 생활안정서비스(긴급키트 지원, 퇴원 안전돌봄, 병원진료 이동서비스 등), 대형 침구류 세탁서비스, 저작기능 약화 노인 영양지원, 정서

서비스를 희망하거나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 또는 과산군노인복지관(☎043-834-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서비스 등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 돌봄 매니저는 "돌봄 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유익했으며, 현장 돌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노인복지관 관계자는 "다양하게 급변하는 돌봄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송인현 군수는 "과산군만의 특화된 돌봄으로 촘촘한 돌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 수행인력의 역량강화가 중요하기에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군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증평군, 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개최

다양한 복지현안 논의 등 심의 및 자문 역할 수행



증평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기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증평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0기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대표·실무협의체

위촉장 수여, 협의체 역할에 대한 설명과 발전 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10기 협의체 위원회는 신임 민간위원장(박미숙 한국교통대학교 보건생명대학장)을 포함해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대표협의체 26명, 실무협의체 위원 31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군에서 추진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 내 다양한 복지현안 논의 등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이재영 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돼 우리군에 어떤 복지사업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하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사회보장정책과 서비스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증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옥천군,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확대

예산 2671만2000원 추가 확보

옥천군이 어린이집 영유아의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해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과 어린이집 운영 부담 경

감을 위해 지난 9월 추경예산 2671만2000원을 추가 확보해 애초 1000원이던 급·간식비를 1700원으로 증액했다.

군내 어린이집은 그동안 현

물로 지원받던 급·간식을 예산으로 지원받아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 무료 급식 지원은 올해 7월 충북도에서 신설한 사업이다.

군은 그동안 어린이집 교육

과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활동비 지원, 차량 운행비 추가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군 어린이집 연합회는 지난 달 간담회에서 군의 급·간식비 추가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황규철 군수는 "군내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모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드림 옥천'을 위해 어린이 시설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가구주 19% 소득 감소... “외식비부터 줄이겠다”

### 통계청, ‘2023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깊어지는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지표로 드러났다.

가구주 5명 중 1명은 1년 전보다 소득이 감소했고, 성인 10명 중 6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간 이동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회조사 결과’의 핵심 내용이 이렇다.

사회조사는 전국 만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명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총 10개 부문 중 흡수해인 올해엔 복지·사회참여·여가·소득소비·노동 등 5개 부문을 조사해 발표했다.

적수해인 가족·교육훈련·건강·범죄안전·생활환경 등 5개 부문을 조사한다.

먼저 소득소비 부문의 결과를 보면 19세 이상 가구주 중 “1년 전

보다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이들은 18.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부채가 증가한 가구주는 20.9%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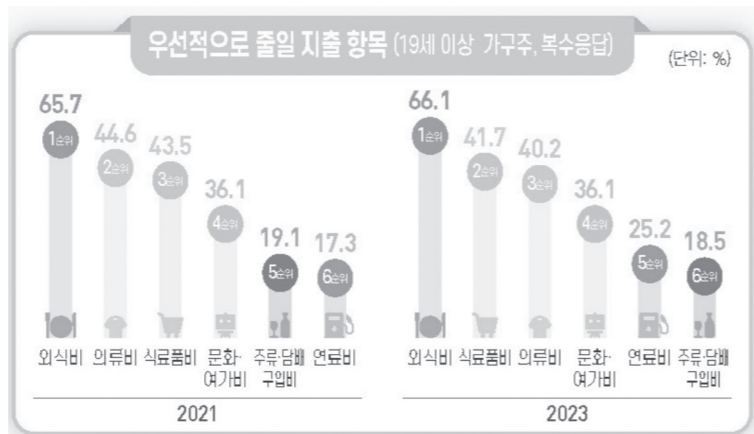
이렇게 재정이 악화하자 가계는 “먹는 것”부터 줄이겠다고 말했다.

재정상황이 나빠지면 줄일 지출항목은 ‘외식비’(66.1%·이하 복수응답 기준) ‘식료품비’(41.7%) ‘의류비’(40.2%) 순이었다.

문제는 미래가 나아질 거란 기대감을 품는 것조차 어려워졌다

“본인 노력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26.4%(이하 19세 이상)에 불과했다.

10년 전(2013년·31.2%) 대비 4.8%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사회조사 결과.

출처: 통계청

고용 불안정을 느끼는 이들도 늘었다. 취업자 중 54.6%는 “실직·이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한창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해야 할 40대의 실직·이직 불안감(57.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에 제대로 대비하기도 쉽지 않다. 19세 이상 성인 10명 중 3명(30.3%)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할 능력이 없어서’(38.0%)가 가장 많이 꼽혔다.

김대중 세종대(경영학) 교수는 “고급리 기초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겨울철 난방비 줄인다... 취약계층 지원

### 등유·연탄 지원 강화... 어린이집 가스요금 경감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일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

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

확대 경로당 6만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36만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2000원(4.4%) 줄어든다.

## 거동불편 노인 방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 내년 100개소로 확대 목표, 참여 지자체·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정에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내년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서비스제공 대상자도 기존 장기요양 1~4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까지 포함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28개

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9월 청구 기준 199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80% 이상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2차 시범사업 공모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12월 8일 까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로 팀을 구성하고, 의사 월 1회·간호사 월 2회의 가정 방문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12월 8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 보장

구분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자생위	기타대상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전화 225분 무료	-	-	-
시외전화	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50% 감면	- 시외전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 감면연도 없음 - 35%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월 26,000원 기본요금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월 11,000원 기본요금 및 초과 요금의 35%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월 청구요금 중 50% 감면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	-	-

통신요금 감면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협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해 문자(SMS)를 통해 안내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통신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요금감면을 시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한국통신진흥협회의 요금감면자 정보를 대조해 아직 요금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취약계층 51만명을 대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안내 대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인명의 이용자 등이 포함돼 모두 감면 대상자는 아니다.

알뜰폰 이용자는 각 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에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요금감면 신청은 전화이동통신사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1523) 및 이동통신사(에스케이티(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 114에서 가능하다.

그 외 온라인정부24 및 복지포, 오피라인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한 복지 수급 신청과 동시에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쉬는 청년 노동시장 복귀에 1조 투입

###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청년층(15~29세) 취업자 규모가 1년째 감소하고 있다.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청년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학업도 취업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규모도 40만명을 넘기는 등 청년층의 고용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약 1조원을 투입해 쉬고 있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로 했다. 쉬고 있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적은 미스매치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쉬고 있는 청년에 대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

면, 지난해 기준으로 78% 정도가 취업 경험이 있었고, 22%가 취업 준비 단계에서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에 실패해 쉬는 청년보다 취업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청년이 더 많은 것이다.

실제 청년 쉬었음 인구 중에 57%는 이전 직장보다 나은 조건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쉬고 있는 상태로,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문제는 쉬었음 기간이 길어질 경우 개인별로는 취업 가능성이 떨어지거나 임금 수준이 내려갈 수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보고, 내년에 9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학과 재직, 구직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대상을 대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내년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곳을 시범적으로 인건고등학교와 매칭해 진로와 취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신입사원의 이른 퇴직을 막기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도 내년에 새로 추진한다.

구직 단념자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맞춤형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성장 프로젝트도 내년에 새로 도입하고, 고립은둔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내달 27일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계층별 장학금이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

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s://www.kosaf.go.kr)과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 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2024학년도에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어려운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2024학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신청방법**

-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www.kosaf.go.kr](http://www.kosaf.go.kr)

**접속 후 신청하세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한국장학재단 앱을 검색하세요.  
※ QR코드를 스캔하면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QR코드

을 지원하며,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를 2023년 대비 9.6%(50만원),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7.7%(30만원) 인상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

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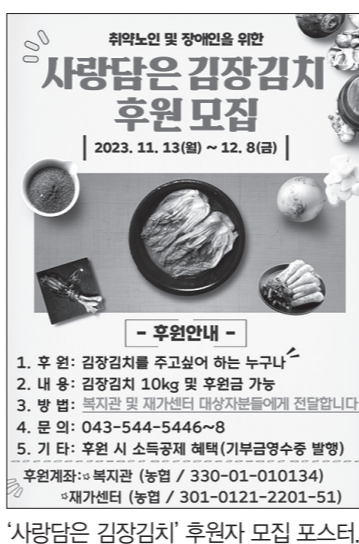
# '사랑담은 김장김치' 후원자 모집합니다

### 내달 8일까지... 이웃 물품지원사업 추진 보은군 내 독거 어르신·장애인에 전달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과 보은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관장 박종분)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한 물품지원사업인 '사랑담은 김장김치'에 참여할 후원자를 지난 13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김장김치 나눔행사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성껏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후원받아 보은군 내 홀로 사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김장김치 후원자는 보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후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김장김치(김치의 양 제한 없음)를 보은군노인·장애

인복지관 또는 보은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전달하면 된다. 박종분 관장은 "김장김치 후원사업 '사랑담은 김장김치'를 통해 후원자들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담은 김장김치' 참여 후원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또는 보은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043-544-5446~8)로 문의하면 된다.



사랑담은 김장김치 후원모집  
2023. 11. 13(화) ~ 12. 8(화)

후원안내

1. 후원: 김장김치를 주고싶어 하는 누구나
2. 내용: 김장김치 10kg 및 후원금 가능
3. 방법: 복지관 및 재가센터 대상자들에게 전달됩니다
4. 문의: 043-544-5446~8
5. 기타: 후원 시 소독공제 혜택(기부금영수증 발행)

후원계좌: 복지관 (농협 / 330-01-010134)  
재가센터 (농협 / 301-0121-2201-51)

'사랑담은 김장김치' 후원자 모집 포스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0일 '꿀잼 놀이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꿀잼 놀이터서 뛰어놀자"

### 지역 어린이 위한 놀이터 개소...2억여원 투입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시공자 리드산업개발 후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목령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준우)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새롭게 문을 연다. 지난 10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놀이터 개소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김세진 리드산업개발 대표,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복지관 마당에 설치된 놀이터는 면적 505㎡에 조항놀이대, 그네, 시소 등을 갖췄다.

총 1억9800만원이 소요됐으며, 설치 비용은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아파트 시공사인 리드산업개발이 전액 후원했다. 복지관을 방문하는 자녀가 있는 시민과 목령어린이집 아동, 더샵오창프레스티지 입주민 자녀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안타까운 마음이 컸는데, 리드산업개발의 도움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꿀잼 놀이터가 마련됐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준우 관장은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 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지개도서관, 97주년 점자의 날 행사

### 시각장애인 발표회·유공자 표창 등

충북 유일의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관장 박상재)은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제97주년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풍연속 청주시 장애인복지과장, 유관기관 관계자,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시각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쓴 유공자 표창장 수여, 기념사·축사, 퀴즈·행운추첨 등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무지개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은 시각장애인들의 발표회도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점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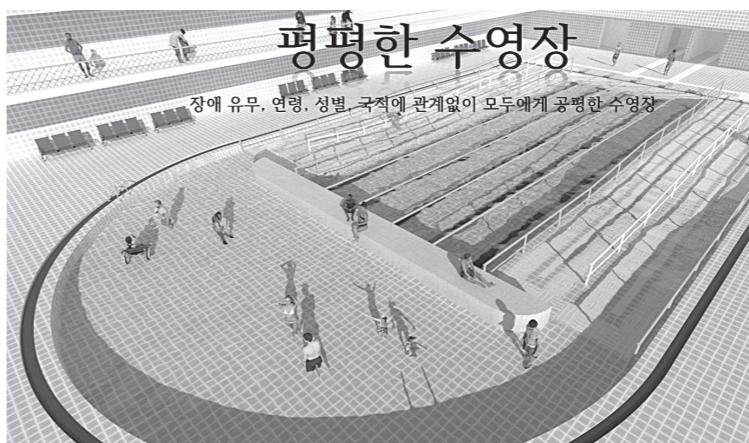
충북 유일의 점자도서관인 무지개도서관은 지난 3일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제97주년 점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점자의 날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의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 청주대,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대전 '대상'

### 건축학과, 편견 없는 '평평한 수영장' 제안



유니버설 수영장 조감도.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이 제5회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대전에서 건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올해는 '모두를 잇다,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주대 3학년 장범용, 유현우, 정승재 학생은 '평평한 수영장'이란 아이디어로 건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평평한 수영장'은 기존의 수영 시설이 갖고 있는 장애 요소들을 해결하고 모두 함께 어우러져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수영장 디자인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가장 희망하는 운동 종목 1위가 수영이지만 실제 이용률이 1.8%에 그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디자인을 구상했다. 이들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수납장, 접근성을 높인 슬로프 레인, 시각장애인이 동선을 쉽게 알 수 있는 점자블록 조합방식을 제안했다.

##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 내달 13일까지 접수... 1인당 250만원 내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센터장 김종석)는 충북도내 노인·장애인에 적합한 보조기기 선택 및 편리한 사용을 위해 맞춤형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힘쓰고자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푸르메재단과 불보자동차코리아와 함께 실시하며,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어린이·청소년에게 '건강한 이동'을 하며 보다 많은 활동과 경험을 쌓길 기원하며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

이다. 신청 방법은 개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고, 인(허)가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으로써 사물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신청 절차 및 일정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www.cbatt.or.kr) 홈페이지를 확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이동 관련 보조기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검색 및 QR코드

구 중 자세유지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1인당 250만원 한도 내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하며, 시중에 판매 중인 보조기기 중에서 개인별로 필요한 기기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이며, 사업 정보 안내 또는 기타 궁금한 점은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043-265-0401)로 문의하면 된다.

## 음성군장애인복지관, 사랑의 연탄나눔

### 전진건설로봇, 500장 기부

음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전호찬)은 지난 9일 금왕읍에 위치한 전진건설로봇(주)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가정 1곳에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500장 연탄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전진건설로봇(주) 고현국 대표이사는 "혼자보다 함께"라는 기업의 핵심가치를 강조하며, 기업의 성장 및 이익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매년 지역 내 취약계층인 장애인 가정에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왔다. 이번 연탄나눔 활동은 기존 후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9일 금왕읍에 위치한 전진건설로봇(주)의 지원을 받아 취약계층 가정 1곳에 연탄 500장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원금 지원과 더불어 전진건설로봇(주)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취약계층 장애인 가정에 방문하여 겨울나기를 위한 연탄 500장을 전달하며, 취약계층 가정의 생활

점검도 함께 진행되어 더 뜻깊은 나눔활동이었다. 장애인복지에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장애인복지관(☎043-883-2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

#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정답은 **충북복지넷**!

www.043w.or.kr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 부모,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구축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등 추가 혜택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22.)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수가 보상 및 교육·수련 강화 등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중증·응급 소아진료 기관이 필수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관이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중증 소아진료 수가를 개선한다.

또한 지역 병·의원을 통한 상시 소아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개별 기관으로 대응이 어려운 야간·휴일 진료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병원 간 협력 지원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영유아검진에 대한 보상 강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인상 추진 검토, 소아진료 전공을 주저하지 않도록 의대생·전공의 교육 등에 대한 재정지원, 의료분쟁 및 보상제도 개선을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주요내용

-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확대... 적자 해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진행
- ▶ 인력 확보 위한 수가 개편... 중증소아 수술 등 의료인력 확보 지원
- ▶ 소아 응급진료 강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대,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
- ▶ 소아진료 보상 강화...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보상 강화, 심야 등 소아진료 수가 개선
- ▶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법안 검토... 의료분쟁 해결 방안 모색

### 현장의 문제인식

#### 1. 중증소아 진료인력 부족

중증·응급 인프라를 확충하여 병원의 적정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있으나, 전공의 급감\*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여전하다.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 ('20) 71.0% → ('22) 27.5% → ('23) 25.5%

\*\*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409개): 시간·연령·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22.5%) ('23.3월)

\*\* 수련병원 실태조사(93개): 코로나 이전(19년 이전)과 비교, 소아입원 축소 70개소(75.2%), 향후 축소운영 계획 22개소(23.7%) ('23.8월, 소아과학회)

#### 2. 상시 소아의료 제공 한계

소아의료는 야간·휴일 의료이용\*이 많고, 적시성·접근성이 중요해 개별 의료기관 대응만으로 지역 내 적정 소아의료 제공에 한계가 있다.

\* 아동 의료이용 시 어려움('22.12월, 보사연): 야간·휴일 소아 진료 어려움(70%), 의료이용 연계적 관리(정보관리체계) 부재(62.5%), 잦은 질병·짧은 의료기관 방문 주기(61.5%)

#### 3. 지역 병·의원 소아진료 약화

저출생 등 의료수요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 수익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원 감소\* 및 다른 분야\*\*로 이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전체 의원 2467개소 증가(3만2491개소→3만4958개소), 소아과 의원 92개소 감소(2227개소→2135개소), 소아과 전문의 증가(5783명→6150명), 병·의원 근무 감소(병원 911명→891명, 의원 3279명→3238명)

\*\* (병원) 요양·정신·한방병원, 소아과 전문의 수 증가(129명→226명), (의원) 소아과 근무, 소아과 전문의 감소(2788명→2576명), 일반의·다른과목 근무 증가(491명→662명)

#### 4. 미래 의료인력 확보 필요

소아진료 분야 지원을 기피하지 않도록 개선된 미래전망이 필요하다.

### 중증·응급 인프라 유지 지원

####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강화

중증 소아환자 진료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시설·장비비 등 예산지원을 확대('23. 10억원→'24. 61억원)한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확충(10→12개소, '23.5월)되며, 계속되는 어린이병원 적자 해결을 위해 중증 소아진료 손실을 성과평가에 따라 보상하는 올해 초 도입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필수 장비·시설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4년 1월부터 소아·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인상하고,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현행 병상 수에서 환자 수와 진료 인력 확보 수준을 고려해 수가를 개편할 예정이며, 중증소아 수술 인력과 시설 유지를 위해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

(현행) 병상 수 기준 → (개선) 지방 및 소아 중환자실의 낮은 병상가동률을 고려하여, 환자 수 적용과 함께, 간호인력·전담전문의 등 인력확보 수준을 반영한다.

중증 소아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0개소→12개소)하고 운영 지원도 확대('23. 52억원→'24. 78억원)하며, 소아 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부담이 큰 점을 고려,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에 대한 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고려,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를 50% 인상한다.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 신설(권역 대비 30% 인상), 중증응급·응급 진료구역 관찰료 1세 미만 100%, 1세~8세 미만 50% 가산

\*\* 응급의료기관 실태조사(409개): 시간·연령·증상 등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은 92개소(22.5%) ('23.3월)

### 소아 입원진료 지원 확대

#### 1. 소아 입원진료에 필요한 전문의 확충

상시 소아환자 입원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입원전담전문의를 진료하는 병동에 소아 환자 입원 시 연령가산\*을 신설하고,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 8세 미만 50% 가산, 야간 근무형(주 7일~주 24시간) 30% 추가 가산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소아진료(인력, 시설 등)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해 보상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2. 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

지방에 사는 소아암 환자도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 관리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방거점병원을 육성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안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정된 거점병원은 충남대병원, 화순전남대병원, 칠곡 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기구급 국립암센터이다. 이렇게 전국 5개 권역에 소아암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을 지원한다.

###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 1. 아동병원 등 협력 거점병원 역량 강화

아동병원이 지역 내 2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아 의료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거점병원으로서 역량을 키우고,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야간휴일 진료를 강화하고, 중증 소아환자 입원진료 기능으로 상급종합병원 풀림을 완화하는 등 지역 내 소아의료를 더욱 탄탄히 만든다.

소아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역량이 갖추어진 전문병원의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 1. 지역 협력 활성화 지원 확대

지역 내에서 상시 소아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병원 간 협력을 지원한다.

야간과 휴일에도 차질 없이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만들고, 지역 소아 전문의가 다른 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병원 제도를 보완한다. 예를 들어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아암 진료 시 지역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전문의 간 협력\*하거나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방 아동병원 병상

과 인력을 활용해 동네 소아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를 입원시켜 진료하는 등 인력 공동활용\*\*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한다.

\*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24.1월) 등 네트워크 평가·보상체계를 소아진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로 확대 추진

\*\* (예시) 인력확보가 어려운 소아 전문분야(소아암 등), 권역별 거점병원의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 전문의 간 개방형 진료체계 운영을 통한 협력 추진

#### 2.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2차병원을 중심(협력 주축병원)으로, 지역 내 신속한 소아환자 의료·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개발,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확산

###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 1. 의료이용 어려운 야간·휴일 소아진료 집중 보상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6세 미만 병·의원급 진찰료\*와 약국\*\*에 대한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 (현행) 심야가산 기본진찰료의 100% → (개선) 기본진찰료의 200%(2배)

\*\* (현행) 심야가산 100% → (개선) 200%(2배), 가루약 조제 난이도 고려 가루약 수가 개선

#### 2.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및 야간·휴일 진료보상 강화

야간·휴일 소아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개소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보상\*한다.

\* 기존 야간진료관리료 수가 대비 1.2~2배 수준으로 인상

또한, 인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증도에 따른 적정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할 수 있도록 소아상담센터를 구축(5개소)한다.

### 지역 소아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 1. 지역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관리 기반 강화

영유아 검진 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동네 병·의원을 통한 소아 건강과 발달에 대한 심층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지역의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이다.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

### 의료인력 양성 지원 강화

#### 1. 의대생 실습 및 전공의 숭기교육 강화

미래 의료인력인 의대생·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중심으로 강화\*하고, 향후 전공\*\*의 선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숭기교육이란 의대에서 특정 진료나 수술과 관련된 기술이나 방법을 익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서 숭기는 의료 기술 혹은 수술 기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예를 들면 심장 수술, 관절천봉, 조음파 검사법 등과 같은 특정한 의료 기술이나 수술 방법을 위한 교육이 숭기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의대생, 전공의들이 향후 전문으로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할 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히게 된다.

\* 의대생 대상,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전문 필수의료분야 실습 지원 등

\*\* 외과·산부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 타 필수의료 분야 확대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을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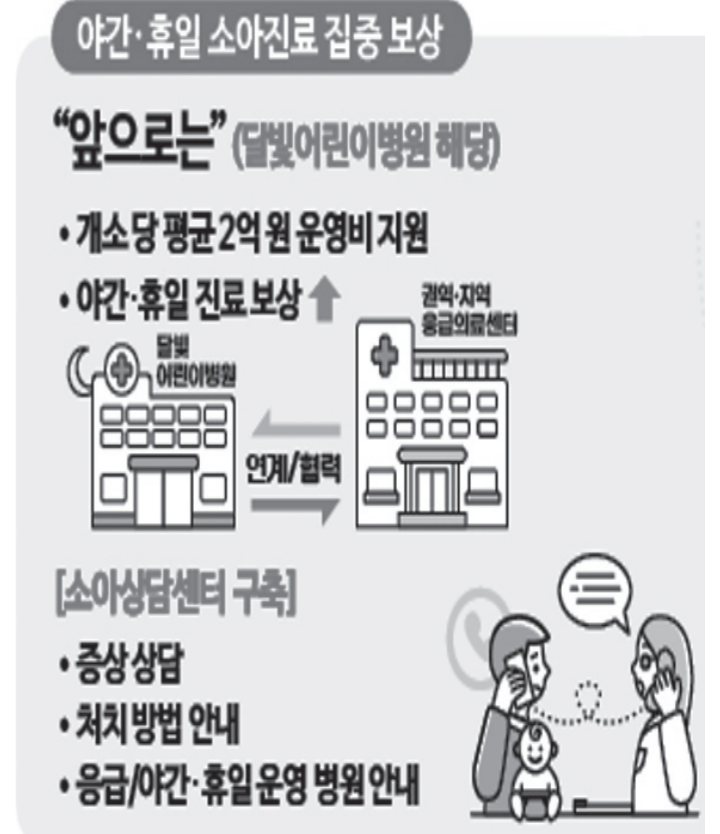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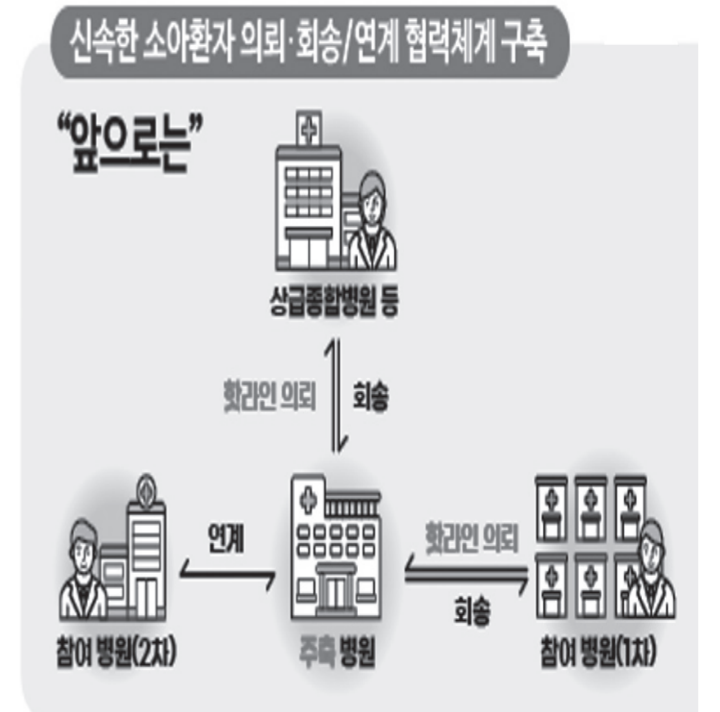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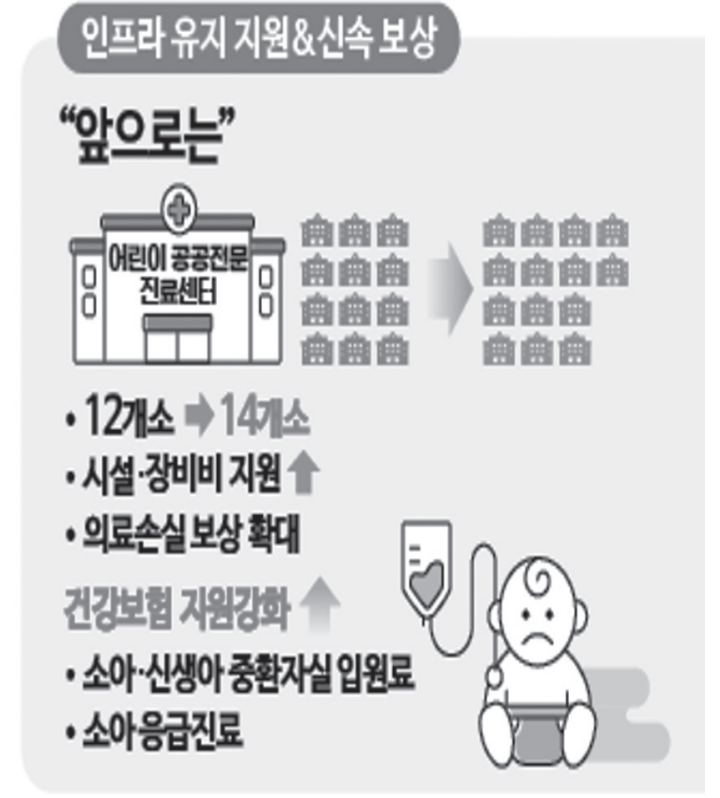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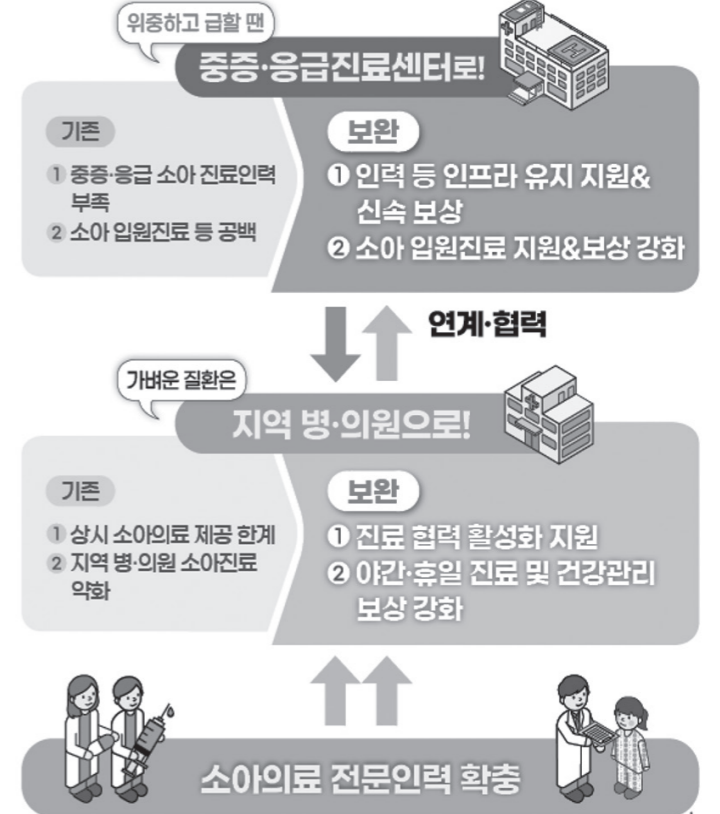
#### 2.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 수련비용 지원

필수의료 진료역량을 갖춘 의료인식을 양성하기 위해 수련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미래 소아 전문 의료인력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 소아과 전공의·소아분야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 원 수련보조수당 지급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박 월 순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2020년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변경되어 신고접수와 조사는 공공기관인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의 성장·양육 상담 등의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매년 사망까지 이르는 아동학대는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고자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하나씩 보완하며 올해는 미등록 신생아 전수조사, 학교 내 아동

학대 대응체계 개선 등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바라보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속, 필자는 법의 개정과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대응체계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됐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아동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고, 아이와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해 아동, 부모, 지역사회 등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학대’라고 얘기하면 신체 학대에 대해 많이 떠올릴 것이다.

신체 학대 유형 비율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학대는 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대가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다.

부모님들을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돌봄을 하다 어쩔 수 없이 체벌을 사용했고, 체벌이 아니면 어떻게 훈육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같이 아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이해가 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민법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어 법적으로 신체적 체벌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 아동 행동의 궁극적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고 오히려 아동 마음에 긴장감과 반발심이 쌓여, 미래 더 큰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요즘 가정 내 학대 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부모의 강압적 양육 태도가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소아 우울증, 사춘기 특성을 벗어난 비행 행동 등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럼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부모들은 어떤 노력을 했을까? 병원 진료, 상담, 핸드폰 사용 제한 등 갖은 노력을 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그 노력은 아동들이 변화하는 것에게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동이 어렸을 때부터 눈을 맞추고 상식과 도덕적 기준 등을 설명하고 설득하며 양육했다면 어떨었을까?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졌지만 대부분 부모는 설명하고 설득하며 건강한 아이로 양육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 정답은 없지만, 아이를 인격체로 인지하고 성장한 어른과 소통하는 것처럼 대화하려 노력하는 것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 보호하고 자신을 지켜낼 힘이 없으며,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이고,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다.

이에 아동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예의와 상식, 권리와 의무 등을 교육하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하고 지지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개성과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모와 자녀의 소통은 아이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는 태도를 부모부터 갖도록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교육하고, 자기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이 외에도 아동이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이 자기 인격을 발전시키고 책임 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지킨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말로 설명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자신을 믿고, 아이들을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복지포럼

함께 읽는 그림책의 힘



백 영 숙

제천하소아동복지관장

우연히 보게 된 도자·마스크를 쓴 아저씨를 그린 삽화그림이 쓴 웃음을 짓게 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조심해야 할 동네 아저씨였는데 이후에는 그 모습이 오히려 안전한 아저씨로 표현되고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활기차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걱정되는 곳으로 바뀌는 등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기준들이 반대가 되었다.

이제는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는 곳이 많아졌지만 코로나와 다른 질병의 확산 등으로 아이들은 더욱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지만 성장기인 어린아이들은 많은 것을 제때 배우지 못해 더했다.

특히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많은데 마스크를 쓴 채, 누가 말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은 소리만 전달되는 상황이 이어졌다.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의 집중시간은 짧고 호기심도 많은데 이런 극한 상황들은 아이들의 집중력을 더 흐트러트렸고, 듣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다.

어른들도 그렇지만 대화는 모든 상황에서 기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의견 전달, 이야기의 주제 파악 등 이런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어른들이 편하기 위해 너무 어린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쥐어 주는 교육방식이 늘어났다. 이로 인해 더욱 대화는 단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폰 속의 화려한 영상들은 아이들이 활자어 더욱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으며,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아이들도 증가하고 산만해짐과 동시에 점점 더 책과는 멀어지고 있다.

일 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성인이 52.2%(202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참조)가 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 아이만큼은 오래도록 책을 잘 읽는 독자가 되었으면 하는 학부모들이 주변에 가득하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말이 있다. 말로 하는 양육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책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 내 아이가, 혹은 내가 만나는 아이가 평생 독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아이와 함께 읽어주어야 하며, 아이들에게 읽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글 읽는 것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함께 ‘그림책’을 읽는 것이다.

우리나라 그림책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수준도 아주 높아져 어느 공공도서관 혹은 집 근처의 작은 도서관에서도 좋은 그림책은 아주 쉽게 만날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실천할 때다.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 보기를 시작으로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유아, 영아여도 괜찮다. 영아들과 함께 읽는 그림책은 즐거움 놀이가 될 것이며, 초등학생과 함께 보는 그림책은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삶의 지혜를 전달해 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보는 것은 학습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흥미가 생겨도 ‘이것이 공부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부터 흥미를 잃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함께 볼 수 있는 어른이 많아지는 것은 아이들에게는 신뢰로운 사회를 만들어주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욱 험준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성장을 위해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작이 그림책 함께 읽기에서 출발하기를 바란다. 아름다운 그림책을 향유하며 가슴 따뜻해지는 경험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이 세상을 분명 단단하고 힘있게, 또한 따뜻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현장의 목소리

따뜻한 목소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년배상담사



노 재 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팀장

현재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북노인공감역량상담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이며, 같은 노인(동년배상담사)이 직접 전화·방문 상담을 주 1회 제공하고 있다.

최근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노인들은 사회·경제·신체·심리적으로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급격한 발전 속, 노인들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분위기 역시 노인들을 힘들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 동년배상담사이며 노인들을 돕는 노인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들은 상담이라는 단어가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얘기해봐야 소용없을거야”, “상담자가 나에 대해 뭘 알겠어”의 이야기로 애초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보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들이 과반수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상, 사회적 역할 상실 등으로 위축되어 내면의 자아에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 물질적 도움보다 심리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동년배상담사’를 탄생시켰으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년배상담사는 인생의 경험과 배경이 유사하므로 상담내담자는 동년배상담사를 신뢰하고, 실제로 본인을 더 잘 이해한다는 믿음에 따라 관계, 변화를 위한 유용성의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동년배상담사 또한 본인이 노인상담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다른 자원봉사활동에 비해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실제로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 어르신도 동년배상담을 받으시면서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어르신도 동년배상담을 통해 복지관에 스스로 찾아오며, 칩거생활을 하던 내담자는 집 주위 산책 및 건강관리를 하는 등

작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점차 삶이 변화되어 우울보다는 웃음으로 보답 해주시는 모습에는 아마도 동년배상담사의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든다.

노인복지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사업 등을 고민하는 동시에 발맞춰 따라오지 못하는 고령노인들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각지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내권 안에 거주하는 고령노인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배워갈 수 있는 상황도 마련될 것이다.

하지만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평등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도 보아야 하는 직업으로서 더욱 고민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많은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20일에 필자는 경기도 성남과 안산시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 충청북도와 다르게 경기도는 노인복지관에 의무적으로 전문노인상담사를 배치하여 고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다고 하였다.

우리 충청북도도 노인 상담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에게 맞는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기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자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간 사회복지사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필자는 노인상담이 되지 않는다면 노인에게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자조모임, 봉사동아리 등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재부여하고 싶다.

노인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재부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항상 경계하는 부분 중 하나는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아동 즉, 클라이언트의 한계점을 정하는 건 사회복지사 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명심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

필자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로 마을 사람 한명 한명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걱정하며 살아간다.

그 모습이 지금 확대사업을 하고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아닐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면 모두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고 서로에게 진정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꿈꾸며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 작가의 말 중 이런 말이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 한 사명 하나, 우리는 이 땅에 괴롭기 위해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 모두 행복하세요.”

똑똑똑! 법률홍닥터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홍닥터

법률홍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서울 원룸 전세를 알 아보다가 깨끗한 신축 원 룸을 소개받아 계약하려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여 보니, 원룸 시세가 1억1000만원 정도 하는데 8000만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위 말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목적부동산 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 다른 담보물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별히 규정한 권리로 실거주와 전입 신고를 통해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가져야 최우선변제 권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별로 소액 임대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이 상이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은 1억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및 김포시는 1억30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및 평택시는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서울 5000만원,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화성시, 세종시, 김포시는 4300만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인천시 및 평택시는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입니다(2021. 5. 1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위의 사례에 나오는 서울의 경우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가 소액임차인이 되고,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입니다(2021. 5. 11. 개정 시행령 기준).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5000만원 한도에서는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어 보증금 전액(3500만원)에 대하여 최우선변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최우선변제의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등)의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1. 5. 13. 당시 적용되는 시행령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일이 2021. 1. 1.이라면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어 3700만원 한도에서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은 경매개시 결정등기 이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 예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공고제2023-728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사회서비스원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다만, 법령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태조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 기관'으로써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실태조사

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복지정보 제공

[월드휴먼브리지, 2023년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산모  
- 기초수급자, 차상위·저소득(중위소득 80%)

- 다문화가정, 탈북민,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 자녀 출산 후 1년(12개월) 이내

■ 신청기간: ~2023.12.29.(금) 18시까지

■ 사업내용: 취약계층 산모를 선정하여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 현금 지원

- 1인당 산후조리비(현금): 최대 150만원(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용 가능 항목: 산후조리원 이용, 의료비(건강검진, 의약품 등)

※ 지원금 수령 후 2개월 내 지출

■ 신청방법: 시설, 단체, 기관 등의 담당자(사회복지사) 또는 사례관리자를 통해 신청(개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홈페이지(www.whb.or.kr)참고

■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4년 1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숲체험교육사업 '나눔숲캠프' 참가 모집 공고]

■ 접수기간: ~2023.12.8.(금) 18시까지

■ 모집대상: 취약계층(20명 이상 단체)

■ 운영기간: 2024.1.29.(월)~4.26.(금)

■ 운영장소: 국립산림치유원, 국립형성·칠곡·장성·청도·대전·춘천·나주 숲체원(8개소)

■ 지원내용: 프로그램비, 식비, 숙박비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숲체험교육사업 지원사이트(recruit.incrut.com)

■ 선정발표: 2023.12.28.(목) 예정

■ 참고: fowi.or.kr

■ 문의: 042-719-4214

[2023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방송사예 지원사업]

■ 사업목적: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아동·가정을 방송으로 소개하고 모금된 기금으로 가정의 자립을 지원함

■ 사업기간: 2023. 1. ~ 12.

■ 지원대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및 일반저소득).

가족구성원 모두 방송출연 동의가 된 가정(방송 출연 시 모자이크 불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

(18세 이상인 경우, 협의 가능), 최근 2년 이내 방송 출연 이력이 없는 가정

■ 지원내용: 최소 1,000만원 ~ 최대 3,000만원(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 등 아동가정 욕구에 맞게 지원)

■ 지원방법: 방송출연 및 온라인·오프라인 모금 진행을 통한 모금액 지원

■ 추천기간: 매월 말일(연중 접수)

■ 추천방법: 이메일 신청

■ 참고: www.bokji.net

[월정어린이복지재단, 의료비 지원 사업 상시 공모]

■ 지원대상: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만15세 이하 초·중학생 및 영유아

■ 지원내용: 지원 아동의 질병 치료에 요구되는 일체의 의료 비용(수술비, 진료비, 약제비, 주사비 등) \*제외: 치과치료, 발달장애 치료(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등)

■ 지원금액: 개인 최대 200만원

■ 신청자격: 선정 아동의 사례 관리가 가능한 아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5440421@hanmail.net)

■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 선정발표: 접수 후 4주 이내 선정 여부 발표

■ 문의: 02-437-2219

자원 봉사자 모집

▶ 시설 봉사(이·미용)  
관리센터: 충주요양원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54-0688

▶ 어르신 생활지원  
관리센터: 청주간호전문요양원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66-0825

▶ 풋살 프로그램  
관리센터: 청주정신건강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85-0102

▶ 심리상담센터 '마음모듬터' 운영 보조  
관리센터: 청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63-1817

▶ 도시락배달·수거 봉사  
관리센터: 괴산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834-3411

▶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66-4761

▶ 중학생 학습지도(영어, 수학)  
관리센터: 서원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12.1 ~ 12.31  
전화번호: 043-233-7578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 풍선아트 환경 조성 봉사활동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은 지난달 29일 청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영)교류소통 공간에서 풍선아트 환경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작품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모습에 놀라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멋있어 즐겁다" 라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 자원봉사단은 2023년 4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무나카타 카호루 단원은 "풍선아트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할 기회를 거듭할수록 단원들의 실력이 늘고 있는 것을 느낀다"며 "새로운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 되었으며, 앞으로도 풍선아트 뿐만 아닌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i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지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2023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2023년 11월 기준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자에 한함  
※ 신청 시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2023년 12월 이후 신규 보호종료되는 자는 자립수당 신청 시 안내 예정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11월 13일부터 개시)**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ON 홈페이지 메인화면 배너의 온라인 신청 링크에 접속하여 신청

**건강보험 직장·직업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병원이내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만 부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
전통병 (보간기간, 조산원 제외)	외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6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입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시대의 50%)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 (기본식대의 20%, 가산식대 면제)
약국 한국화기 필수 약박물관	처방조제 4,000원 초과 4,000원 이하	처방조제 4,000원 초과 4,000원 이하
	의약품 4,000원 이하	의약품 4,000원 이하

복지만평

선물

이창신 www.bokmani.com

시련을 견뎌야



귀한 선물을 얻는다.



역경 이후에 찾아올 선물을 기약하라!